

전남 마을 620곳 버스도 오지 않는다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

158곳은 대중교통 운행 불가

노선버스 1~3회 운행 844곳

100원 택시 연계 대안 필요

버스·철도·선박 등 대중교통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전남지역 마을(행정리)이 158곳에 달했다. 또 462개 마을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844개 마을은 노선버스는 다니지만 고작 하루 3차례 이하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0원 택시'와 연계한 농어촌형 교통모형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광주전남연구원 정하옥 선임연구위원이 '광전리터스 Info(인포) 제79호'에

■노선버스 하루 3회 이하 운행 마을 가장 많은 전남 시·군

1위 신안군	124곳	4위 장흥군	69곳
2위 해남군	72곳	5위 강진군	67곳
3위 영암군	70곳	6위 나주시	58곳

실은 '전남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 필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6768개 행정 리(里) 중 대중교통이 전무한 마을은 158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은 462개에 달했다.

또 노선버스는 다니지만 운행횟수가 하루 1~3회인 곳은 844개 마을, 4~6회인 곳은 2082개 마을이었다.

시군별로 노선버스 하루 3회 이하 운행된 마을이 가장 많은 곳은 신안군으로 124곳이나 됐다. 이어 해남군 72곳, 영암군 70곳, 장흥군 69곳, 강진군 67곳, 나주시 58

곳 등의 순이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탓에 마을 주민들은 이동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스운송사업자는 벽·오지는 많고 수요는 적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탓에 농어촌지역 버스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2016년말 기준 171억원(교부세 8억9328만원, 시·군비 162억1355만원)을 웃돌았다. 벽지노선은 전남 21개 시·군 786개 노선, 연장거리 5013km이다.

정 연구위원은 "전남 대중교통 정책 기조를 기존 도로 인프라 확충과 중대형 노선버스 운영 일반화에서 탈피해 거주민 생활환경을 고려한 수요응답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고정된 노선·정류장·운행시각을 변경해 운행하는 교통시스템

으로, 버스의 대량수송과 택시의 '문전(door-to-door)' 서비스 장점을 결합한 변형된 대중교통서비스이다. 이는 택시·소형승합차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도로 폭이 협소한 마을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 택시의 문전서비스 기능이 가능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주민협의체, 운송업체, 시·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상생 협의체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행정의 전문성·지속성·일관성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농어촌 교통복지 측면의 공공서비스 의무화 차원에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원 택시'와 연계한 교통모형을 세부화해 시·군 또는 유형별 실태조사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어촌형 세부운영 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안보리, 北 정유제품 90% 차단·북한 노동자 2년내 송환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달리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북한에 귀환 조치토록 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및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일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달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된다. 애초 미·중 협상을 거친 최종 수정안(블루텍스트·blue text)에서는 12개월 이내로 시한을 못 박았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



비 맞는 소녀상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위로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한일 정부 간에 이뤄진 일본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검토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사 16명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이 24일 첫 반응을 내놓

았지만 구체적인 고강도 위협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새 제재를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역척 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도발을 직접 예고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9월 '외무성 보도'로 반응을 내뉘던 것보다 격은 높아지기는 했지만 내용으로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 행보) 내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규제개혁으로 기업·지역민 상생하자

전남도 담당 공무원 50명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다. 하지만 개발계획상 화학업종 입지는 제한됐다. 투자를 추진한 관련 기업들은 규제에 의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여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전남도와 머리를 맞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도 설득했다. 적극 행정으로 지역민 동의를 얻어낸 여수시는 국토부로부터 2014년 10월 화학제품 업종 입지가 가능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냈다. 공장용지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여수시는 관련 기업들로부터 2조2000억원의 신규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여수시의 규제개혁 모범 사례다.

전남도는 최근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과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업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박사는 초청 강연에서 "내년부터 네거티브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 분야에서 창의력 발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적극 행정으로 기업과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우수 사례로 여수시의 '여수국가산단의 용도·업종 규제 개선'이 소개됐다. 여수시는 이를 통한 공장 용지 부족 문제를 해소, 2조2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2200억원의 여수해안리조트 투자유치 사례도 발표했다.

고흥군은 국방부와 군시설 이전 협의를 통해 '우주해안리조트 특구 개발'을 추진, 매년 60개의 일자리 창출과 3509억원의 민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문경시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역량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와 시군 간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도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녹색한우' 46%까지 싸게 맛보세요

30일까지 9곳서 할인행사

대통령상을 수상한 '녹색한우'를 최대 46% 싸게 맛볼 수 있는 할인행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 조합은 '2017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10일간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규모는 15~46%다. 무항생제 최고급 품질인 한우고기 1kg당 6만원인 상품을 15% 할인한 5만1000원에 판매하고, 7만5000원인 꼬리 5kg 세트는 4만원으로 40%까지 싸게 판매한다.

할인 행사는 전남지역 녹색한우 판매장 9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기업체 등에서 단체 주문하면 택배로 배송해준다.

또 행사 기간에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녹색한우 예코백을 제공하는 등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배운한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은 규제형 청정지역으로서 축산물브랜드 경쟁력 운영 및 축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을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혈통 발굴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전남 한우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한우 광역브랜드인 '녹색한우'는 목포무안신안축협 등 서남부 8개 조합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07년부터 육성하고 있다. 2255농가 9만5675마리를 사육,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연매출 502억원을 기록한 전국 최대 규모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호텔
연수원·요양병원 변경 가능
• 구례 신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텔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울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